



소변에 자주 거품 끼나요? '단백뇨' 의심

기사입력 2020-01-07 11:09 최종수정 2020-01-07 11:19



사진설명=콩팥 질환 등이 있으면 소변에 거품이 일 수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소변에 거품이 자주 일면 '단백뇨'를 의심하고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 전신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

단백뇨는 혈액 내의 단백질이 소변에 다량 섞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콩팥이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소변으로 혈액 내 단백질이 빠져나오지만 그 양은 매우 적다.

단백뇨는 원인에 따라 질환과 관련 없는 '단순성 단백뇨'와 '질환에 의한 단백뇨'로 나뉜다.

단순성 단백뇨는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과도한 운동을 했거나 오래 서 있었을 때, 몸에 고열이 날 때는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원인이 제거되면 단백뇨도 사라져 별문제가 안 된다. 질환에 의한 단백뇨는 콩팥 질환이나 전신 질환에 의해 나타난다.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신증후군, 급성 사구체신염, 만성 사구체신염, 신우신염, 유전성 신염, 신장 종양,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당뇨병의 신장 합병증, 다발성 골수종, 루푸스가 있고, 소염진통제 같은 약물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단백뇨의 흔한 증상은 소변에 거품이 이는 것이다. 단, 단순히 거품만으로 진단할 수 없고 소변 검사를 실시해야 정확한 진단이 이뤄진다. 고대안산병원 신장내과 차진주 교수는 "단백뇨가 있더라도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다가 신체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흔치 않다"며 "그러나 단백뇨 양이 많으면 보통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고 말했다.

차진주 교수는 "만성 신질환에서 단백뇨는 콩팥 기능을 악화시키는 불량한 예후를 의미한다"며 "즉, 만성 신질환에서 단백뇨가 심하면 심할수록 만성신부전증으로 진행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식이 조절이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만성신부전증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거나 늦추는 치료 방법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다량의 단백뇨가 동반돼 다리 부종이나 전신 부종, 폐부종이 발생했다면 약물 치료뿐 아니라 저염식, 저단백식으로 식생활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lhn@chosun.com

▶ 국내 최고 명의 590명은 누구일까?

▶ 대표 건강 사이트 헬스조선닷컴 바로가기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346&aid=0000029945>
